# 자궁 속 거룩

## (레12:1~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 그 여인은 아직도 삼십삼 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육 일을 지내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궁 속 거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자궁 속 거룩'
태아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뱃속,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은 가히 꿈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곳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3kg 이상 되는 아기가 그 좁은 자궁 안에서 도대체 뭐가 평안하겠느냐고 하는데 자궁속의 암흑은 안정의 암흑이고 양수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꿈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강북 삼성병원의 이 교원 산부인과 의사가 "생의 첫 한 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수 분만법" 입니다. 우리는 보통 출산 직후에 우렁차게 우는 아기를 건강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개가 출산을 할 때에 보면 평온한 가운데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태어나서 곧바로 크게 울어야만 되는가에 의문을 품고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우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료진들의 행동과 출산하는 병원의 환경, 차디찬 쇠로 된 테이블이라든지 집기들의 소리로 자궁 속에 있던 아기에게는 큰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마디로 두렵고 거북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그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속의 양수와 똑같은 온도의 물을 준비하는데 사랑수로 만듭니다. 사랑수를 만든다는 것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물을 향하여 '미워, 나가 죽어'라고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사랑, 평화, 나는 너를 아껴,

행복해'라는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사랑수를 만들었는데 의사들과 가족들과 산모와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사랑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말을 해서 물의 결정체를 아름답게 해서 양수의 온도와 같게 만들고 주변의 환경을 평화스럽게 해서 아기를 받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받아낼 때 아기의 평생이 한 시간 출산 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자궁의 환경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 아기가 울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사랑수 분만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산모의 정결문제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유출, 신체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불결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나오는 분비물 때문에라도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불결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는 출산이 창조시점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서처럼 복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될 수 없는 더러운 일로 여겨지므로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 사회에서 아기 낳는 산모가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출산이라고 하는 복된 사건조차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시편 51: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이 일이 죄악 가운데 일이라는 것을 알고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정결함의 문제가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일과 거룩함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 일과 거룩함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분만자체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이 분만이 거룩함과 모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은 거북함이 아닌 가장 좋음이고 가장 편안함의 상태이고, 가장 거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태아에게 가장 편안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엄마의 자궁 속을 말합니다. 꿈의 궁전입니다. 원초적인 편안함이고 엄마의 자궁 속에서 거북하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자연스럽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궁은 태아에게는 구분된 장소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도 아닌 어머니의 뱃속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함

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구분된 장소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가장 좋음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자궁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거룩함이라는 게 아기가 꿈의 궁전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최상의 편안함이라고 하면, 이 자리로부터 세상에 나옴으로 이 교원 의사의 말씀대로 사랑수 분만법을 쓰더라도 한 시간이지 두세 시간을 사랑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시간이 미래의 모든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기도 그 분의 추측에 근거한 확신일 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나올 때 거북함을 느껴서 우는 것이고 사랑수 분만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기의 일생에 고난과 고민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거북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편안함을 빼앗긴 채로 전혀 낯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인간의 인격적 차원에서 가장 편안한 자궁은 무엇일까요?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거룩함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궁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인간창조의 계획속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출생이라는 것이 어떤 내막을 품고 있느냐면 인간의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아기의 인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의 몸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사는 것인데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에덴의 삶으로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이 내 일생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삼상 25:29절에 자기 남편 나발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을 달랠 때 아비가일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 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싸개’가 바로 자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일평생 동안 다윗의 생애를 담아두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자궁이요, 하나님 뜻의 계획의 생명싸개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아담 타락 이후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 인격은 그 인격을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평생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준

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태초 이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타락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육체가 빛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내 인격은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바깥으로 나동그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나동그라진 게 이게 바로 불결입니다. 청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 하실 때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인격, 아기의 마음, 아기의 정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궁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바깥으로 나동그라져버렸으니 어머니가 하는 일이 이 땅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서 아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계획의 바깥으로 태어나게 했으므로 더러움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므로 청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담 타락이후로 운명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계획 자궁 바깥에 나동그라지므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나동그라져버렸으니 이 불결함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얘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요14: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전체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자궁 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 번민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나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보다 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피가 다 아래로 쏠리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베드로도 순교자들도 예수님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현장에서 초대교인들이 기쁨과 화평에 가득차서 순교를 했다는 얘기는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훨씬 더 겁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죽을 때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 있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그토록 극한의 고통을 당해

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처한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자리는 하나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진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육체가 태어나면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의 자궁, 하나님 뜻의 자궁 바깥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주님이 그 저주의 자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구해내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서 살고 계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세계인 저주의 세계로 나동그라지셔야 되는 상황으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궁 바깥에서의 삶, 내 뜻으로 살고 부모의 뜻으로 살고 세상이 만들어주고 인간세상이 나에게 주입시켜놓은 신념체계를 따라 돈이 최고로 좋고 출세가 최고이고 승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번민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배설물이 묻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애기의 똥이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그때의 그 불편한 마음과 애기의 배설물이 손에 묻었는데 냄비의 국이 막 끓으면서 넘칩니다. 똥 묻은 손으로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거북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손으로 그릇을 만져야 되는 이 상황이 죽기보다 싫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너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손에 배설물을 묻히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배설물이 묻었으면 아무리 아이가 예뻐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궁 바깥에 나동그라졌기 때문에 전신이 다 불결해졌는데 그 불결해진 상태로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업을 만지고 자식을 만지고 배우자를 만지면서 살고 있으니 삶 전체가 더럽고 거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 삶이 좀 smooth하지 않고 불편한 이유는 거북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더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더러운 이유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궁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아에게는 꿈의 궁전 아닙니까? 우리의 꿈의 궁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궁입니다. 그런데 다 바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궁 바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셔서 지금이라도 회복하라고 일으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자궁 안의 아기를 보면 답답해 보이지요. 우리가 내 뜻은 하나도 없이 생각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한

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벗어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면 손에 오물을 묻히고 무엇인가를 만져야 하는 거북함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있을 때 근본적으로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이 가장 좋음과 가장 편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갖고 싶어 소원하고 이루려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불만이 생기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면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 불만이 생길 때, 소원이 생길 때, 의욕이 생길 때,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때,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할 때 죽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면 깊이, 깊이 더러움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거하면 이 땅에서 내 몸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자궁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때 진정한 평안함과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충족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가 될 때 이 세상을 향한 생각과 행동과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37: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상태에서 나오는 소원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뻐하는 마음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생명싸개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머무는데 이게 또 자궁입니다. 거룩은 태아가 꿈의 궁전과 같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태아에게 어머니의 뱃속이 꿈의 궁전이듯이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궁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나안 복지요, 거룩한 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거룩한 땅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